

“행복했던 ‘봉주르 빵집’, 성취감 높았죠”

차승원, 김희애·김선호·이기택과 어르신들 위한 빵집 운영
김희애 “달콤한 행복 드리고 싶었다”… 쿠팡플레이 8일 첫선

“제가 했던 예능 가운데 가장 놀라운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 ‘저걸 어떻게 했나’ 싶으실 겁니다. 마지막엔 ‘이 프로그램을 하길 잘했구나,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구나’라고 생각했죠.”

배우 차승원은 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 빵집’ 제작발표회에서 “성취감도 난도도 가장 높았다”고 시골 빵집을 운영한 소감을 전했다. ‘삼시세끼’ 시리즈로 ‘차주부’, ‘스페인 하숙’으로 ‘차셰프’라는 애칭을 얻은 그는 ‘봉주르 빵집’으로 디저트의 달인인 ‘차티시에’로 변신한다.

다양한 예능에서 손맛을 뽐내 왔지만 제과 제빵 도전은 처음이다. 그는 “제과 제빵은 과학이라고 한다. 그만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 요리하는 걸 못 해서 부담 때문에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제과 제빵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행복했

다. 허들을 하나하나 넘는 성취감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8일 오후 4시 첫선을 보이는 ‘봉주르 빵집’은 전복 고창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베이킹 예능이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동반인만 입장 가능한 ‘예스 시니어존’ 카페를 배경으로 어르신들과 배우 차승원, 김희애, 김선호, 이기택 등 빵집 식구들이 위로와 온기를 나눈다. 차승원과 이기택이 ‘셰프팀’으로 청보리, 복분자 등 고창 특산품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고, 김희애와 김선호가 ‘홀팀’으로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김관주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김 작가는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부친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 용산역 커피숍에서 케이크를 먹고 즐거워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기



6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새 예능 ‘봉주르 빵집’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기택(왼쪽부터), 차승원, 김희애, 김선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애는 “예전에는 외국 가면 (음식이) ‘예쁘다’, ‘맛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타깝게 젊은 층에만 열려 있고,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더 제약적이다. 그런 분들에게 디저트처럼 달콤하고 축복한 행복을 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근 안방에서는 ‘방과후 태리 쌤’, ‘보검매직퀸’처럼 소멸 위기

에 놓인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 친화형 예능이 잇따르고 있다.

‘보검매직퀸’의 경우 이발소가 위치한 전복 무주의 앞섬마을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살리기’ 효과가 나타났다.

김관주 작가는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촬영지가 관광 자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고창은 먹음 음식도, 관광지도 많다. ‘봉주르 빵집’ 촬영지와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도 고민하고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티빙 오리지널 ‘취사병 전설이 되다’ 11일 공개 박지훈 “미필이라 더 어색하고 새로웠죠”

“감독님도 일부러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친구를 찾다가 저를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밀리터리 덕후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촬영을 하면서 진짜 (군대가) 이런 분위기겠구나 싶었어요.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새롭더라고요.”

배우 박지훈은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엠베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열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제작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촬영하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군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밝혔다.

군 미필자인 그는 향후 군대를 취사병으로 갈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사실 전 20대 때부터 해병 수색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며 “너무 가고 싶었던 부대로,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조남형 감독은 “‘약한 영웅’ 속 박지훈의 눈빛이 정말 좋았다”며 “처음엔 어리숙하지만 자기 목표를 향해 강단 있게 나아가는 성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캐스팅했다”고 그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총 대선 식칼을, 탄피 대신 앞치마를 두른 이등병 강성재(박지훈 분)가 마치 게임처럼 요리 능력을 얻은 뒤 ‘전설의 취사병’으로



6일 서울 광진구 풀만 엠베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 열린 티빙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제작발표회에서 박지훈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군대 배경의 현대 판타지물이다.

극 중 성재의 상관인 박재영 상사 역할을 맡은 윤경호는 박지훈에 대해 “‘약한 영웅’과 ‘왕사남’에서 보여준 대단한 눈빛이 이번 작품에도 있었다”며 “군대를 안 다녀온 신병의 어쩔 줄 모르는 눈빛을 너무 잘 표현해줘서 기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작품 속에는 한동희, 이훈래, 이상이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오는 11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오후 8시 50분 티빙과 tvN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SBS ‘섬총각 영웅’ 시즌2 나온다

임영웅 자급자족 일상 담은 힐링 예능

가수 임영웅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SBS TV 예능 프로그램 ‘섬총각 영웅’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SBS ‘섬총각 영웅’ 시즌2에 출연한다”며 “한층 더 확장된 이야기와 새로운 ‘캐미’(호흡)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 달라”고 6일 밝혔다.

‘섬총각 영웅’은 임영웅이 지인들과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다. 꾸밈없는 인간적인 매력,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 출연자 사이의 진솔한 교감 등이 호평받았다. ‘고향이 그리워질 때 즈음 섬총각이 찾아오겠다’는 자막으로 끝난



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방송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임영웅의 또 다른 지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송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불암 60여년 연기 인생 그린 다큐 공개

MBC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 본인 출연은 불발

배우 최불암의 삶과 60여년의 연기 인생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다만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본인의 출연은 결국 불발됐다.

지난 5일 공개된 MBC 다큐멘터리 ‘파하 최불암입니다’ 1부에선 MBC 드라마 ‘전원일기’, ‘그대 그리고 나’ 등을 통해 ‘국민 아버지’로 불리게 된 배우 최불암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연극에서 TV로 무대를 옮긴 계기, 연기를 대하는 태도 등이 그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최불암의 연기 세계를 음악과 함께 되짚어 보는 라디오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진행하는 DJ 역할은 ‘그대 그리고 나’에서 최불암의 만아들로 출연한



2024년 2월 당시 MBC 다큐 ‘돌아온 레전드-수사반장’ 인터뷰에 응한 배우 최불암. MBC 방송 화면 캡처

배우 박상원이 맡았다. 당초 이 방송은 최근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최불암의 근황을 담으려 했으나, 결국 그의 출연은 성사되지 못했다.

2부작으로 제작된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는 오는 12일 오후 9시 두 번째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인들의 K-호러 통했다

넷플 ‘기리고’ 비영어 쇼 1위

신인 배우들이 대거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리고’가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6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덤에서 집계한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리고’ 시청수(Views·시청 시간)를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750

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1위에 올랐다. 국가별로는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집트, 카타르, 브라질 등 64개국에서 톱 10에 들었다.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있는 저주를 피하려는 고등학생 5명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전소영, 김기나, 현우석, 이효제, 백선호 등 신선한 얼굴들이 주연으로 나선 한국형 오컬트 학원물로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4위에 오른 데 이어 공개 2주 차에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가정의 달 기획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제주 뉴스 10:00 무엇이트 물어보세요 11:10 사랑의 가족(재)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홀릭 7:00 TV 유치원 7:30 웃찾사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10 셀럽병사의 비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MBC 뉴스특보 11: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1:15 건강의 재구성 셀럽(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방방 8:50 종문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꾸러기 탐구생활 11:00 말하는 몸	8:50 꼬마미법사 주니토니 9:20 오구오구 내 새끼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EBS 평생학교 15:50 마사와 곰 16:40 최고대 호기심 따지 17:10 페퍼 피크 18:50 PD로그 21:55 왔다 내 손주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파니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10 어린이동물터비(재) 15:4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25 동네 한 바퀴(재) 13:30 KBS 아침 뉴스타임 붉은 진주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매직펜던트 대모험(재) 16:00 TV 유치원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농민예능 따라잡기	12:00 12 MBC 뉴스 12:25 가정의달 특집 앙코르 다큐 파하 최불암입니다 1부 13: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5:1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건강 하루스 광있는 아침(재)	12:00 SBS 12 뉴스 12:45 팔라 행복한 곰돌이 13:00 투데이(재) 14:00 뉴스브라썬 15:30 와이드 정보소 알고보면 16:00 테이스티뉴스(재)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여행에 진심	9:00 KCTV 9시 뉴스 9:30 KCTV 스페셜 10: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1:00 KCTV 11시 뉴스 11:30 캠핑가자 12:30 도래별 13:30 특종TV4터비 15:30 토토로 플레이 16:00 삼촌 명심합서에 17:20 지금 이순간 19:30 쿼리 시즌 2
제주CBS FM 93.3MHz 90.9MHz				
18:00 6시 내교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가정의 달 기획 한국인의 발상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셀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플러스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50 미나시리즈 심우연 연리리 23:05 우리동네 야구대장(재)	18:05 테마기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23:50 오십프로 프리미어	18:0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선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14:05 이불규의 여행기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7일

김종상 지단 (組頭)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자녀들 먹을 본다. 재물은이 깊하다. 48년 약속이 생기면 먼저 도착해 마중하면 나를 존경한다. 60년 낮엔 의욕이 저하, 저녁엔 생기가 넘친다. 야근할 일이 생길수도. 72년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격당신을 빨리 할 수 있다. 84년 기대나 공짜는 더 큰 욕심이 되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37년 가정에 불화조짐. 내가 먼저 양보 배려. 49년 흔들리면 의욕상심이 많이 초래되니 처음 결심이 지속되도록 유지. 61년 야망사탐 또는 자녀문제로 몸이 바쁘다. 73년 하는 일에 희망이 있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 85년 뒷사람의 의견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실함으로 신뢰를 만회할 때.

38년 활동력이 왕성해진다. 자식이나 야망사람과의 교류가 있다. 50년 모임이나 즐거움이 계획되니 지출이 많아진다. 62년 몸이 분주하다. 외출 또는 모임에 갈 일이 생긴다. 74년 집안 어른께 에-경사가 오니 준비를 미리하라. 손님을 초대할 일이 생긴다. 86년 취업이나 직장 문제로 분주함이 있다.

39년 하는 일이 풀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 51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문서 관련 업무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품품한 확인과 업무 처리 필요. 75년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참고 인내함도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87년 할 일이 생긴다. 원칙과 예의를 가져라.

40년 만남을 소중히. 인연의 시작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52년 뒷분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인정받게 된다. 64년 명예의 실추와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다. 대충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도 지혜. 76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 조심해야. 88년 집중력이 오는 효율적 시간대를 활용하라.

41년 라이벌이 등장하는 격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매출은 저조. 53년 맹목적 신뢰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주변인의 말에 현혹 조심. 65년 상대를 밝은 표정으로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실익이 생긴다. 77년 취직과 업무에 관련된 것은 겉이지만 이성문제는 자질이 생긴다. 89년 계획을 수립, 실천함이 필요하다.

42년 이등은 또는 자녀로 인한 일로 고민한다. 54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사소한 일로 민감하다. 상처주는 말을 삼가하라. 66년 손재수 도난 우려되니 조심. 외출 시 착각에 의한 분실 조심. 78년 이성간 마찰이 생기거나 급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90년 마찰 시비구설이 올 수 있으니 급전거래는 보류하는게 원만.

43년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에 신경써라. 55년 투자 시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 변화 시 신중하라. 67년 고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 자제. 흥을 보지 마라. 79년 이성간 교제나 활발한 마음이 주위에 알려진다. 91년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용돈이 생기게 된다.

44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56년 새로운 계획이 오니 주위사람과 상의해 길을 모색하라. 68년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고 결과가 함께 있어 깊하다. 80년 미소가 아름다운 날. 화내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라. 92년 위장 또는 귀에 이상이 오거나 체력이 저하된다.

45년 자신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시 뒷사람이 칭찬을 한다. 57년 문서에 이득이나 영입에 이득이 따른다. 69년 후배나 동료간 친목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성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81년 명예 또는 문서에 변화가 오니 잘 대처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날. 93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6년 자기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재물에 이익이 따른다. 58년 내 일보다 자녀문제로 생각이 가득차 있다. 자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70년 대세를 따르면 편하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출현해 경쟁한다. 82년 직장인은 호운이 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자영업은 휴식 필요. 94년 용돈을 받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47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 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59년 부모님이나 뒷사람, 거래처의 일로 신경을 쓰게 된다. 71년 같은 업종이나 동료를 만나 즐거우나 큰 도움은 못된다. 83년 외부에서 인가와 칭찬을 받는다. 가정에서는 불협화음. 조기 평가하라. 95년 오늘은 짐작하게 내일을 준비하자.